

PhaseFlow

[프로젝트 설명]

- 프로젝트 설명, 팀원 프로필 입력을 위한 템플릿(작성 가이드라인) 필요
- AI 프레젠테이션 제작 서비스인 Gamma에는 <텍스트로 붙여넣기/생성/파일 또는 URL 가져오기/템플릿 리믹스하기> 4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것을 레퍼런스로 참고
- 해당 프롬포트 편집기를 살펴보시고 UX를 향상할 수 있는 프롬포트 편집기 제공
- 저는 아이패드 유저라 회의록을 주로 pdf 형식으로 공유하는데(pdf 등), 회의록이나 기획안을 pdf 형식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입력기가 제공되면 훨씬 간편하고 편리할 듯 함
- 텍스트 기반 입력이라 하더라도 마크다운, 불렛 등을 이용해서 층위를 나눌 수 있게 하면 가독성이 높아짐

[팀원 프로필]

- 일하는 것에 Loves/Hates가 왜 들어가야 하는지 필요성이 잘 납득되지 않음. 일하면서 꼭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니까... 능력치에 대한 지표(분석/협업 툴/디자인/개발)를 적는다거나, 잘하는 일/못하는 일(지금의 Loves/Hates랑 내용상 똑같은 것 같지만)로 적는 게 더 직관적이다. 처음에 예시 읽기 전에는 진짜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 (뭐 커피... 운동... 이런 거) 적는 줄 알았음
- 성격적인 특징이나 결점(아이디어가 많은 편이지만 남발하는 경향 있음, 성급하고 독단적임 등)을 입력하는 것도 AI가 함께 고려하면 좋겠다

[Phase 구조 개선]

- 이 기능 좋음. MVP로 꼭 있어야 할 것 같음. 회의 중간중간에 수정해서 Milestone 잡기에도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애자일한 프로젝트의 특성상 Milestone도 중요하지만 Deadline도 엄청 중요함. AI가 이 부분을 고려해서 각 Phase 별로 며칠 정도를 소요해야 하는지, 혹은 며칠 이상 넘어가면 위험한지 알려줘서 풀로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 블랙박스 현상: PM의 특성상 팀원들의 특징은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처음에 UI만 봤을 때는 왜 해당 팀원이 해당 Phase에 배정되었는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Phase 구조 개선 창에 "왜 팀원들이 각 Phase에 배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어."라고 입력하니까 아래처럼 설명을 수정해 주었음 [좌: Phase 구조 개선 전/우: Phase 구조 개선 후]
- PM이 아닌 팀원들도 납득하기 쉽게 처음부터 오른쪽처럼 나오면 좋겠다.

The screenshot shows two side-by-side Phase Structure interfaces. The left interface, titled 'Phase 3: AI 매칭 로직 & 백엔드 개발', includes a 'Activity Timeline' section at the bottom. The right interface, titled '핵심 AI 및 백엔드 시스템 구축', has the 'Activity Timeline' section removed, making the 'Phase Status' section more prominent. Both interfaces show three main sections: 'Team Members', 'Activity Stats', and 'Phase Status'. The 'Team Members' section shows 0 active members and 1 recommended member (R Robin). The 'Activity Stats' section shows 0 artifacts uploaded, 0 AI invites sent, and 0 total events. The 'Phase Status' section shows 'Pending' status.

- 맨에 activity timeline 부분 창 안에 다 안 들어오고 혼자 튀어나와요

☰ 제품 비전 & 핵심 기능 정의

타겟 유저 (채팅 소설 애호가, 베추얼 캐릭터 팬 등) 분석 및 니즈 파악, Voice AI 기반 캐릭터 챗 서비스의 핵심 가치 제안 및 MVP 범위 정의, GTM (Go-to-Market) 전략 초기 수립. David는 사용자 인터뷰와 경쟁 분석을 통해 제품의 'Why'를 정의하고 GTM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Sarah는 UX 리서치 역량을 활용하여 타겟 유저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Team Members

Active (0)

No active members

Recommended (2)

D David

S Sarah

📋 Activity Stats

Artifacts Uploaded

0

AI Invites Sent

2

Total Events

2

🕒 Phase Status

Status: Pending

⌚ Activity Timeline

'Why' 정의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시 참여가 필요합니다!

AI 분석 결과: 업로드된 서평은 '경영학 콘서트'라는 책을 통해 경영학적 사고, 수익 경영,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마케팅 전략, 공급 사슬망 관리, 경영 과학에서의 최적 의사결정 방식 등 다양한 경영학적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학'은 한정된 자원으로 조직이 원하는 최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자가 행동 과정이다'라는 문구와 다양한 기업 사례 분석은 David님의 'Defining product Why'와 'GTM strategy' 역량과 연결되어 제품 비전 정의에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 AI Invite Sent

Nov 14, 04:50 PM

To: Sarah (Designer/UX Researcher)

🔔 @Sarah 님! 'Phase 1: 제품 비전 & 핵심 기능 정의' 단계에서 '경영학 콘서트' 서평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특히 '수익 경영'과 '데이터 기반 추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Sarah 님의 '복잡한 정책을 단순한 UX Flow로 그리기'에 대한 고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시 참여가 필요합니다!

AI 분석 결과: 서평에서 다이나믹 프라이싱, 구독 플랜을 통한 고객 데이터 기반 추천 서비스 등 '수익 경영'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Sarah님의 '복잡한 정책을 단순한 UX Flow로 그리기' 능력과 연관되어, 초기 제품 기능 정의 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수익 모델을 어떻게 UX로 풀어낼지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dit with 

[Arifact Upload]

- 이 기능이랑 AI Auto Invites 가 제일 좋고 유용하다고 생각함
- 회의록을 보고 팔로우업 해야 되는 부분이나 인사이트, 제안을 팀원들에게 바로바로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참신하고 좋다
- 이것도 [프로젝트 설명] 이랑 마찬가지로 pdf 파일을 업로드하게 해주고, 이미지를 이해하는 VLM, OCR이 들어가야 파일의 내용을 빠짐없이 잘 이해 할 수 있을 거 같다

[서비스 전반]

- 이 서비스의 목적이 협업 허브인데 회의록 자체를 저장하거나 타임라인을 관리하거나, 하는 기능이 MVP에 조금 더 들어가면 좋겠다. 아니면 Artifact Upload & AI Auto Invites 기능만 집중해서 MVP로 삼으면 좋겠다.
- 프로젝트를 하거나 PM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일정 관리임. 특히 서로 다른 tool을 가진 사람들끼리 협업하면 그 사람이 맡은 phase가 어떤 강도로 어떤 기간동안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뭐 우리는 디자인 안해봤으니까 이정도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디자이너가 날 밤 까야 된다거나... 데이터가 없고 모집단 부족한데 무조건 바로 데이터 인사이트 뽑아달라거나... 이런 것들)
- 그래서 단순히 업무 분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각 phase의 KPI는 무엇이 될지, 시간은 어떻게 될지. 이렇게 돼 있으면 PM-팀원 사이 뿐만 아니라 팀원-팀원 사이에도 좋은 효율성 향상 틀이 될 것 같다